



#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6월 11일)

## 생명의 빵(요한 6,51-58)



###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요한 6,51)

성체 성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이고 정점입니다. 성체를 받아모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살과 피가 되신 이 큰 신비는 사랑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출처: 서울주보, 2014. 6. 22.)

###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62번 “성체 성혈 그 신비”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아니 계신 데 없이 곳곳에 계신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소서.  
- 생명의 빵이신 주님, 제 마음 당신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52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대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5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54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58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요한 6,51)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했던 경험(성체성사적 삶)은 무엇입니까?

†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요한 6,56)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나의 성체성사적 삶을 통해 그리스도와 일치 체험한 적은 있습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약간 긴장한 모습의 한 소녀가 주일학교 친구들의 영성체 자세를 유심히 살피더니 영성하게 손을 모아 성체를 받아 모십니다. 그러나 영하지는 않고 두 손을 감싸 안은 채 자리로 들어갑니다. 놀란 사제는 급하게 성체를 다시 모셔 오고, 미사를 마친 후 그 소녀를 불러 왜 그랬는지 묻습니다. 겁에 질린 소녀는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오랫동안 아파 누워 계신 자신의 할머니가 성체를 한 번만이라도 모시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씀하셔서 할머니께 가져다 드리려 그랬다고...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본당 신부님은 신자들을 통해 부모님 없는 그 소

녀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무척 어려운 상황임을 그제야 알게 됩니다. 본당 신부님과 신자들은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집 청소며 필요한 생필품 등을 마련해 드립니다. 그리고 매월 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병자 영성체를 시작합니다. 그 소녀도 조금은 늦었지만 교리를 배우고 첫영성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62번 “성체 성혈 그 신비”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